

#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영성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영성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례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 **월정헌금**  
홍유정

## 주간 성경연구

13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신명기 3장 1절 ~ 11절			
월요일	신명기 3장 12절 ~ 22절	목요일	신명기 4장 14절 ~ 24절	
화요일	신명기 3장 23절 ~ 29절	금요일	신명기 4장 25절 ~ 31절	
수요일	신명기 4장 1절 ~ 14절	토요일	신명기 4장 32절 ~ 40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영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목사	김제호	
	전도사	이필례	
찬양대	지위자	할렐루야 : 김한나 홍 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덴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바깥구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공희라 최유경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선교사	솔리스트 김안나 정예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철 이성욱 미국 : 김다니엘 미국 : 최옥희	이집트 : 김진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태국 : 박영성 정세미 맥시코 : 김홍기	태국 :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광교도소, 영등포시활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20. 3. 22. 주일가정에배설교  
시편 91편 1~16절  
보호자 하나님  
설교 이진우 목사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136년의 세월 동안 예배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중국 후베이 우한에서 발병한 ‘우한폐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19’ 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퍼져 나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예배는 중단되었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실망과 낙심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듯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때로 우리는 놀라며 당황스러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누구나 경험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시대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속에 찾아오는 재앙과 괴로움은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70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광야에 폭우가 쏟아지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가 피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앙의 한복판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한다면 우리는 재앙이 지나 갈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역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 하나님께 달려가 그분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의 기간을 통해 그전에는 결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몇 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것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기도회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시간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함을 소망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구원의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며,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더욱 만나야 하고, 더 깊이 알아야 하며,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저는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순간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 부모님을 찾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기 아이의 위급한 소리에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지 연락처를 뒤적이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구하고 엿드려야 할 때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탄식,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두 맹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여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꾸짖을 정도로 큰 소리에 예수님을 부르고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눈을 뜨고 싶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울려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함으로 그분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SINCE 1975

No. 46 - 13

2020. 03. 29.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는 삶” [사도행전 12장 24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이진우
Senior Pastor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